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1권 제3호

ISSN : 2233-4890(Print)

### 남녀대학생의 결혼관에 미치는 융복합적 영향요인 비교

김혜진, 김희정, 서민숙

To cite this article : 김혜진, 김희정, 서민숙 (2020) 남녀대학생의 결혼관에 미치는 융복합적 영향요인 비교, 한국융합학회논문지 , 11:3, 153-162

① earticle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학술교육원은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earticle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www.earticle.net](http://www.earticle.net)

# 남녀대학생의 결혼관에 미치는 융복합적 영향요인 비교

김혜진<sup>1</sup>, 김희정<sup>2</sup>, 서민숙<sup>3\*</sup>

<sup>1</sup>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교수, <sup>2</sup>남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sup>3</sup>상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Comparison of Convergence Factors Affecting Views on Marriage of Male and Female Students

Hyejin Kim<sup>1</sup>, Hee-Jeong Kim<sup>2</sup>, Min-Sook Seo<sup>3\*</sup>

<sup>1</sup>Professor, Red Cross College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sup>2</sup>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Namseoul University

<sup>3</sup>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angji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의 결혼가치관에 미치는 융복합적 영향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남자 172명과 여자 185명을 대상으로 결혼가치관, 자녀가치관, 성 역할 태도, 성태도를 조사한 횡단적 조사연구이다. 자료수집은 2019년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3.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결혼가치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순서는 남자는 자녀가치관( $F=29.530$ ,  $p<.001$ ), 성 역할 태도( $F=9.850$ ,  $p<.001$ ), 성태도( $F=7.038$ ,  $p=.009$ )이었고 여자는 자녀가치관( $F=48.767$ ,  $p<.001$ ), 성태도( $F=32.204$ ,  $p<.001$ ), 성 역할 태도( $F=18.904$ ,  $p<.001$ )이었다. 결혼가치관의 설명력은 남자 33.4%, 여자 43.8%이었다. 따라서 남녀 대학생의 결혼율과 출산율 향상을 위해서는 남녀 모두 긍정적 자녀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주제어** : 결혼가치관, 자녀가치관, 성 역할 태도, 성태도, 남녀 대학생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affect the views on marriage of male and female students. Of the students recruited, 172 were male, and 185 were female. Data were collected using questionnaires about views on marriage, children, gender roles, and gender attitudes and were analyzed using the IBM SPSS 23.0 program. Data were collected from May 1, 2019 to June 15, 2019. The significant predictors of views on marriage were views on children( $F=29.530$ ,  $p<.001$ ), gender roles( $F=9.850$ ,  $p<.001$ ) and gender attitudes( $F=7.038$ ,  $p=.009$ ), explaining 33.4% of the variance in male, were views on children( $F=48.767$ ,  $p<.001$ ), gender attitudes( $F=32.204$ ,  $p<.001$ ) and gender roles( $F=18.904$ ,  $p<.001$ ), explaining 43.8% of the variance in femal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programs to improve views on students.

**Key Words** : Views on marriage, Views on children, Gender roles, Gender attitudes, Male and Female students

\*Corresponding Author : Min Sook Seo(placebo72@sangji.ac.kr)

Received December 4, 2019

Accepted March 20, 2020

Revised January 20, 2020

Published March 28, 2020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결혼가치관은 동일 세대에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형성하는 결혼에 대해 갖는 태도 및 신념으로 결혼 및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 개인이 지향하는 규범 및 가치관을 의미하며 가족가치관의 일부분으로 결혼가치관은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1].

2019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혼인건수는 2010년 326,104건이었으나 2017년 264,455건, 2018년 257,622건으로 감소하였으며, 평균 초혼 연령도 2010년 남자 31.84세, 여자 28.91세에서 2017년 남자 32.94세, 여자 30.24세이고 2018년 남자 33.15세, 여자 30.40세로 늦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가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면서 사회진출 및 경제적 독립이 어려워지고 취업난, 주택가격 폭등, 학자금 대출로 인한 부담으로 결혼시기가 늦어지면서[2], 젊은 층을 중심으로 결혼관이 변화하였다. 또한, 독신 및 기타 다양한 생활양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과거와 다르게 결혼이 누구나 해야 하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생활방식 중의 하나로 선택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3].

이러한 결혼관이 저출산 문제의 주요 관련 요인으로 이야기되면서 결혼관의 변화가 출산과 자녀관에 영향을 미치는 개념으로 자주 거론되고 있다[4]. 우리나라 저출산은 초혼 연령 증가, 초산 연령 증가, 여성 교육수준의 향상, 여성 취업률의 증가, 결혼 연기, 혼인율 감소 등에 그 원인이 있다[5,6]. 또한, 경제적 여건으로 출산에 대한 계획이 없고[7], 자녀가 노후에 필요하다는 인식은 줄어들지만,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7] 출산을 꺼리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출산을 저하는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사회를 촉진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젊은 미혼남녀 특히, 사회진출에 대한 준비를 기반으로 결혼에 대한 가수요층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결혼기피 원인이 무엇인지, 결혼 가치관이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결혼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요인은 자녀가치관이었다 [3,4,8]. 자녀가치관은 부모로서 자녀에 대해 갖는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기대에 대한 만족감과 부담으로 긍정성과 부정성이 함께 존재한다. 즉, 긍정적 측면은 출산의 동기가 되지만 육아의 부담 등 부정적 측면은 출산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9].

또한, 몇몇 선행연구들에서는 비전통적인 성 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을수록 결혼을 지연시킨다고 하였다[10,11]. 성 역할이란 행위나 태도에 있어서 남녀별로 적절하다고 규정된 문화적 기대치로, 역할(role)은 어떤 특정한 지위를 점하고 있는 개인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문화적 기대를 말한다[12]. 어느 사회에서나 남녀 간 역할 분담은 존재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세월동안 뚜렷한 성 고정관념이 존재해 왔다.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일정한 성 역할이 규정되었으며 성차별이 존재해 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선행연구들의 결과에서 비전통적인 성 역할 태도를 지니고 있는 청년들일수록 기존 한국사회의 가부장제도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되어 결혼을 기피하고 지연한다고 하였다. 여전히 한국 사회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러한 한국사회의 전통적 제도가 결혼에 대한 인식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성 역할 태도 뿐만 아니라, 성적인 측면과 관련된 태도나 관점을 말하는 성태도[13] 또한 결혼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14,15]. 성태도는 성에 대한 느낌, 생각, 가치관, 성욕구 및 성행동과 관련이 있고, 가정환경 및 사회문화의 시대적 배경의 영향을 받으며 형성되는 것으로써 결혼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 한번 형성된 성태도는 변화하기가 쉽지 않고 특히, 청년기인 대학생 시기에 형성된 성태도는 개인의 결혼관과 우리 사회의 성문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16]. 이러한 성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에서 모두 남녀의 차이가 존재하였고, 성과 관련된 남녀의 차이를 보는 연구가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15].

마지막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몇몇 선행연구에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결혼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며,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17,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치관, 성 역할 태도, 성태도가 결혼가치관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남녀 간에 다르게 반영되고 있을 것으로 예측하여 성별 간 결혼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차이를 함께 규명하고자 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의 결혼가치관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결혼 및 저출산 정책의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이다.

### 1.2 연구 목적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 대학생의 결혼가치관, 자녀가치관, 성 역할 태도, 성태도의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남녀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혼가치관,

자녀가치관, 성 역할 태도, 성태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남녀 대학생의 결혼가치관, 자녀가치관, 성 역할 태도, 성태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남녀 대학생의 결혼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 2. 연구 방법

###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의 결혼가치관, 자녀가치관, 성 역할 태도, 성태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 대상자 및 자료수집 방법

연구대상자는 W시의 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을 편의 표집하였다. 표본수는 G-power 3.1.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효과크기 0.15, 검정력 95%, 유의수준 5%로 산출한 결과 166명이 요구되었다. 이에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남, 녀 각각 185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이 중 부적절하게 응답한 13부를 제외한 남 172부, 여 185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9년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로 연구자가 직접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 절차, 설문지 작성 방법 등을 설명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를 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약 15분 정도이며 설문지 끝난 직후 회수하여 봉투에 넣은 후 밀봉하였다.

### 2.3 연구 도구

#### 2.3.1 결혼가치관

결혼가치관은 Jung, Kim, Bae, Kim과 Song[19]이 개발하고 Lee[20]가 수정 보완한 23문항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혼가치관의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에 대해 전통적·보수적임을 의미한다. Lee[20]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는 .8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는 .841이었다.

#### 2.3.2 자녀가치관

자녀가치관 측정도구는 Kim[21]의 연구를 토대로 수정하여 7문항의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적 의미로서의 자녀가치 2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현대적이고 개방적인 자녀

가치관을 가지는 것이며 노후 보장으로서의 자녀가치 2문항과 사회적 의미로서의 자녀가치 3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자녀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833이었다.

#### 2.3.3 성 역할 태도

성 역할 태도는 Lee[22]의 정의식, 성가치관 도구에서 성 역할 태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성 역할 태도는 15문항으로 가정적 성 역할 태도 8문항, 사회적 성 역할 태도 7문항의 하부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도구는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남성중심의 사고를 가진 것이다. Lee[22]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가 가정적 성 역할 태도 .928, 사회적 성 역할 태도 .84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가 가정적 성 역할 태도 .931, 사회적 성 역할 태도 .937이었다.

#### 2.3.4 성태도

성태도는 Ho[13]가 사용한 도구를 수정 보완한 Yu[23]의 도구에서 결혼관 7문항, 낙태 6문항을 제외한 29문항으로 성행동 11문항, 혼전순결 7문항, 성허용성 6문항, 동성애 5문항의 4개 하부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Likert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개방적이고, 낮을수록 보수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Yu[23]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가 성행동 .812, 혼전순결 .863, 성허용성 .707, 동성애 .856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성행동 .736, 혼전순결 .904, 성허용성 .713, 동성애 .867이었다.

#### 2.3.5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성별, 나이, 종교, 수입, 출생순위를 포함한다.

### 2.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3.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결혼가치관, 자녀가치관, 성 역할 태도, 성태도는 서술통계로 구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혼가치관, 자녀가치관, 성 역할 태도, 성태도의 차이는 One-way ANOVA를 이용하였고 Scheffe's test로 사후검정을 시행하였다. 또한 결혼가치관, 자녀가치관, 성 역할 태도, 성태도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실시하였고 결혼가치관 영향요인은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 2.5 윤리적 고려

연구 대상자는 연구의 목적, 방법 및 연구 참여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연구자가 연구 참여를 원하는 경우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에 따른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수집된 자료는 익명성을 보장하며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 3. 연구 결과

### 3.1 일반적 특성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남자는 172명으로 평균 21.35세이었고, 종교는 무교 103명(59.9%), 기독교 48명(27.9%), 천주교 12명(7.0%), 불교 9명(5.2%) 순이었으며 출생순위는 둘째 63명(36.6%), 첫째 62명(36.0%), 셋째 이상 25명(14.5%), 외동 22명(12.8%)이었다. 수입은 400만원 이상이 86명(50.0%), 200~300만원이 41명(23.8%), 300~400만원이 32명(18.6%), 200만원 미만이 13명(7.6%)이었다.

여자는 185명으로 평균 20.50세이었고, 종교는 무교 101명(54.6%), 기독교 54명(29.2%), 천주교 24명(13.0%), 불교 4명(2.2%) 순이었으며 출생순위는 둘째 95명(51.4%), 첫째 61명(33.0%), 셋째 이상 16명(8.6%), 외동 13명(7.0%)이었다. 수입은 400만원 이상이 92명(49.7%), 200~300만원이 55명(29.7%), 300~400만원이 27명(14.6%), 200만원 미만이 11명(5.9%)이었다.

Table 1. General related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ies	male (n=172)	female (n=185)
		n (%) or M ± SD	n (%) or M ± SD
age		21.35±2.43	20.50±1.64
religion	no religion	103(59.9)	101(54.6)
	buddhism	9(5.2)	4(2.2)
	christian	48(27.9)	54(29.2)
	catholic	12(7.0)	24(13.0)
	other	0(0.0)	2(1.1)
birth order	a single child	22(12.8)	13(7.0)
	first child	62(36.0)	61(33.0)
	second child	63(36.6)	95(51.4)
	third child above	25(14.5)	16(8.6)
parent income 10,000won /month	below 200	13(7.6)	11(5.9)
	200-300	41(23.8)	55(29.7)
	300-400	32(18.6)	27(14.6)
	400 above	86(50.0)	92(49.7)

### 3.2 대상자의 결혼가치관, 자녀가치관, 성 역할 태도, 성태도 정도

남녀의 결혼가치관, 자녀가치관, 성 역할 태도, 성태도의 정도는 Table 2와 같다.

남자의 결혼가치관은 평균 3.44점이었고 자녀가치관은 평균 3.50이었으며 하부영역은 개인적 의미가 4.01점으로 가장 높고 사회적 의미가 3.11점으로 가장 낮았다. 성 역할 태도는 평균 2.09점이었고 하부영역은 가정적 성 역할 태도가 2.26점으로 사회적 성 역할 태도 1.89점보다 높았다. 성태도는 평균 2.74점이었고 하부영역에서 혼전순결이 평균 3.08점으로 가장 높고 동성애가 2.19점으로 가장 낮았다.

여자의 결혼가치관은 평균 3.28점이었고 자녀가치관은 평균 3.06점이었으며 하부영역으로 개인적 의미가 3.52점으로 가장 높고 사회적 의미가 2.51점으로 가장 낮았다. 성 역할 태도는 평균 1.55점이었고 하부영역은 가정적 성 역할 태도가 1.70점으로 사회적 성 역할 태도 1.37점보다 높았다. 성태도는 평균 2.86점이었고 하부영역에서 혼전순결이 평균 3.30점으로 가장 높았고 성행동이 2.56점으로 가장 낮았다.

남녀의 결혼가치관( $t=3.359, p=.001$ ), 자녀가치관( $t=5.742, p<.001$ ), 성 역할 태도( $t=6.867, p<.001$ ), 성태도( $t=-2.293, p=.022$ )에서 모두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타났다.

###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혼가치관, 자녀가치관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혼가치관, 자녀가치관의 차이점을 점검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결혼가치관에서 남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여자는 종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F=2.898, p=.023$ ), 기독교가 천주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자녀가치관은 남녀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3.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 역할 태도, 성태도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 역할 태도, 성태도의 차이점을 점검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성 역할 태도에서 남자는 출생순위, 부모수입에서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났다. 출생순위는 첫째가 둘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F=6.036, p<.001$ ). 그러나 부모수입은 사후분석결과 유의하지 않았다. 여자는 성 역할 태도에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2. Difference of the Views on marriage, Views on children, Gender roles, Gender attitudes by male and female studnets

Variables	Range	Male(n=172)			Female(n=185)			t(ρ)
		M ± SD	Minimum Value	Maximum Value	M ± SD	Minimum Value	Maximum Value	
Views on marriage	1-5	3.44±.50	1.22	5.00	3.28±.43	2.22	4.52	3.359(.001)
Views on children	1-5	3.50±.76	1.00	5.00	3.06±.68	1.00	4.57	5.767(<.001)
In person	1-5	4.01±.81	1.00	5.00	3.52±.80	1.00	5.00	5.721(<.001)
Retirement guarantee	1-5	3.59±.95	1.00	5.00	3.44±.81	1.00	5.00	1.575(<.116)
Social	1-5	3.11±.97	1.00	5.00	2.51±.86	1.00	4.33	6.276(<.001)
Gender roles	1-5	2.09±.91	1.00	5.00	1.55±.51	1.00	4.00	6.867(<.001)
Family- oriented	1-5	2.26±.98	1.00	5.00	1.70±.60	1.00	4.00	6.413(<.001)
Social- oriented	1-5	1.89±.90	1.00	5.00	1.37±.49	1.00	4.00	6.754(<.001)
Gender attitudes	1-5	2.74±.54	1.28	3.90	2.86±.44	1.38	4.14	-2.293(.022)
Sexual behavior	1-5	2.67±.53	1.36	4.00	2.56±.45	1.36	4.00	2.011(.045)
Premarital chastity	1-5	3.08±.99	1.00	5.00	3.30±.76	1.00	5.00	-2.405(.017)
Gender tolerance	1-5	2.92±.70	1.33	4.67	2.83±.51	1.50	4.33	1.386(.167)
Homosexuality	1-5	2.19±.93	1.00	4.40	2.92±.94	1.00	5.00	-7.329(<.001)

Table 3. Difference of the Views on marriage, Views on children by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ies	Views on marriage				Views on children			
		Male(n=172)		Female(n=185)		Male(n=172)		Female(n=185)	
		M ± SD	F(ρ)	M ± SD	F(ρ)	M ± SD	F(ρ)	M ± SD	F(ρ)
religion	no religion	3.47±.49	.713 (.545)	3.28±.43	2.898 (.023) a)b	3.48±.79	.235 (.872)	3.05±.74	.659 (.621)
	buddhism	3.37±.36		3.07±.54		3.40±.67		2.93±.34	
	christian <sup>a</sup>	3.43±.54		3.39±.41		3.56±.79		3.16±.65	
	christian <sup>b</sup>	3.26±.49		3.05±.37		3.58±.53		2.95±.53	
	other	0.00±.00		3.33±.34		0.00±.00		2.64±.30	
birth order	a single child	3.50±.51	1.389 (.248)	3.49±.46	2.510 (.060)	3.64±.49	1.580 (.196)	3.20±.81	1.616 (.187)
	first child	3.51±.56		3.34±.40		3.56±.79		3.19±.67	
	second child	3.34±.45		3.21±.42		3.34±.81		3.00±.67	
	third child above	3.48±.43		3.22±.48		3.65±.75		2.88±.61	
parent income 10,000won /month	below 200	3.47±.57	1.773 (.154)	3.28±.33	.825 (.482)	3.59±.78	.594 (.620)	3.09±.66	.025 (.995)
	200-300	3.52±.54		3.32±.44		3.63±.84		3.06±.72	
	300-400	3.26±.61		3.35±.56		3.45±.74		3.09±.82	
	400 above	3.46±.41		3.23±.39		3.45±.74		3.06±.62	

Table 4. Difference of the Gender roles, Gender attitudes by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ies	Gender roles				Gender attitudes			
		Male(n=172)		Female (n=185)		Male(n=172)		Female(n=185)	
		M ± SD	F(ρ)	M ± SD	F(ρ)	M ± SD	F(ρ)	M ± SD	F(ρ)
religion	no religion <sup>a</sup>	2.13±.93	.541 (.655)	1.49±.54	2.222 (.068)	2.83±.53	5.095 (.002) a)b	2.96±.39	5.137 (.001) a)b
	buddhism	2.29±.97		1.92±.39		2.72±.62		2.78±.24	
	christian <sup>b</sup>	1.98±.93		1.63±.46		2.49±.54		2.64±.48	
	catholic	1.94±.51		1.48±.44		2.93±.27		2.93±.44	
	other	0.00±.00		2.20±.19		0.00±.00		2.93±.10	
birth order	a single child	2.23±.92	6.036 (.001) a)b	1.35±.35	2.398 (.070)	2.57±.45	1.499 (.217)	2.92±.41	1.839 (.142)
	first child	2.40±1.05		1.62±.49		2.72±.57		2.75±.48	
	second child	1.75±.63		1.57±.55		2.83±.54		2.91±.43	
	third child above	2.03±.84		1.30±.31		2.69±.53		2.90±.37	
parent income 10,000won /month	below 200	2.26±.73	3.549 (.016)	1.44±.58	.483 (.695)	2.75±.69	1.617 (.187)	2.89±.39	1.054 (.370)
	200-300	2.25±1.04		1.57±.46		2.61±.56		2.77±.50	
	300-400	2.38±1.04		1.46±.41		2.66±.53		2.84±.41	
	400 above <sup>d</sup>	1.87±.76		1.57±.56		2.82±.50		2.91±.42	

성태도에서 남자와 여자 모두 종교에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났으며 무교가 기독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F=5.095, p=.002$ ), ( $F=5.137, p=.001$ ).

### 3.5 대상자의 결혼가치관, 자녀가치관, 성 역할 태도, 성태도의 상관성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Table 5와 같으며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에서 자녀가치관과 결혼가치관의 상관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r=.581$ ), 그 다음으로 성 역할 태도와 자녀가치관( $r=.412$ ), 성 역할 태도와 결혼가치관( $r=.317$ ) 순으로 나타났다. 성태도와는 역상관 관계를 나타내었는데 성 역할 태도( $r=-.454$ ), 자녀가치관( $r=-.258$ ), 결혼가치관( $r=-.199$ ) 순이었다.

여자에서 자녀가치관과 결혼가치관의 상관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r=.665$ ), 그 다음으로 성 역할 태도와 자녀가치관( $r=.366$ ), 성 역할 태도와 결혼가치관( $r=.219$ ) 순이었다. 성태도와는 역상관 관계를 나타내었는데 자녀가치관( $r=-.496$ ), 결혼가치관( $r=-.387$ ), 성 역할 태도( $r=-.187$ ) 순이었다.

Table 5. Correlation of Views on marriage, Views on children, Gender roles, Gender attitudes

		Views on marriage	Views on children	Gender role	Gender attitudes
male	Views on marriage	1			
	Views on children	.581**	1		
	Gender role	.317**	.412**	1	
	Gender attitudes	-.199**	-.258**	-.454**	1
female	Views on marriage	1			
	Views on children	.665**	1		
	Gender role	.219**	.366**	1	
	Gender attitudes	-.387**	-.496**	-.187*	1

\*  $p<.05$ , \*\*  $p<.01$

### 3.6 대상자의 결혼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요인

남녀 대학생의 결혼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다중공선성, 잔차의 독립성, 정규성을 진단하였다. 다중공선성은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지

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을 확인한 결과, 남자는 공차한계 .79 - .93, VIF 1.0 - 1.2이었고 여자는 공차한계 .68 - .99, VIF 1.0 - 1.5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잔차의 독립성 검정을 위해 Durbin-waston을 확인한 결과, 남자는 1.988, 여자는 1.782로 자기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잔차의 분석 결과, 남녀 모두 잔차의 정규 P-P 도표에서 선형성이 확인되었고 산점도도 잔차의 분포가 0을 중심으로 고르게 퍼져 있어 오차항의 정규성과 등분산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모형은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적인 가정 충족되었으며 분석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남자의 분석결과, Model 1에서 한 개의 통제변수인 성태도는 결혼가치관 변이의 3.4%를 설명( $F=7.038, p=.009$ )하였고 성태도와 성 역할 태도가 통제변수로 추가된 Model 2에서는 결혼가치관 변이를 9.4% 설명( $F=9.850, p<.001$ )하였으며, 성태도, 성 역할 태도, 자녀가치관이 통제변수로 추가된 Model 3은 결혼가치관을 33.4% 설명( $F=29.530, p<.001$ )하였다. Model 2에서는 성 역할 태도가 투입되면서 Model 1보다는 영향이 늘어났으며( $p<.001$ ) Model 3에서 성태도, 성 역할 태도가 통제 되었을 때 자녀가치관이 결혼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p<.001$ ).

여자의 분석결과, Model 1에서 한 개의 통제변수인 성태도는 결혼가치관 변이의 14.5%를 설명( $F=32.204, p<.001$ )하였고 성태도와 성 역할 태도가 통제변수로 추가된 Model 2에서는 결혼가치관 변이를 16.3% 설명( $F=18.904, p<.001$ )하였으며 성태도, 성 역할 태도, 자녀가치관이 통제변수로 추가된 Model 3은 결혼가치관을 43.8% 설명( $F=48.767, p<.001$ )하였다. Model 2에서는 성 역할 태도가 투입되면서 Model 1보다는 영향이 줄어 들었으나( $p=.028$ ) Model 3에서는 성태도, 성 역할 태도가 통제된 후에 자녀가치관이 결혼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p<.001$ ).

## 4.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결혼가치관, 자녀가치관, 성 역할 태도, 성태도를 파악하고, 남녀 차이를 비교하여 남녀 대학생의 결혼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남학생 21.35세, 여학생 20.50세였고 종교는 남녀 모두 무교(남자 59.9%, 여자 54.6%)가, 출생순위는 둘째(남자36.6%, 여자 51.4%)가

Table 6. Influencing Factors on Views on marriage of Male and Female Students

variables	Male(n=172)			Female(n=185)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1	model 2	model 3
	$\beta(p)$	$\beta(p)$	$\beta(p)$	$\beta(p)$	$\beta(p)$	$\beta(p)$
(Constant)	3.943	3.288	2.158	4.343	4.006	2.290
Gender attitudes	-.199(.009)	-.070(.393)	-.021(.763)	-.387(<.001)	-.5219(<.001)	-.076(.235)
Gender roles		.285(.001)	.085(.256)		2.217(.028)	-.028(.640)
Views on children			.541(<.001)			.637(<.001)
F(p)	7.038(.009)	9.850(<.001)	29.530(<.001)	32.204(<.001)	18.904(<.001)	48.767(<.001)
R <sup>2</sup> variation (p)	.040(.009)	.065(.001)	.241(<.001)	.150(<.001)	.022(.028)	.275(<.001)
Adj R <sup>2</sup>	.034	.094	.334	.145	.163	.438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대학생의 결혼가치관, 자녀가치관, 성 역할 태도, 성태도에 있어서는 남녀 모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결혼가치관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전통적이며 보수적인 결혼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며[8], 남성이 여성보다 결혼의향이 높다는 다수의 연구들[24-26]과 맥락을 같이 한다. Park[27]의 연구에서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들의 경우 결혼의 보상을 더 높게 지각하며, 여학생들의 경우 결혼의 비용을 더 높게 인식하여 결혼의 부정적 측면을 더 크게 지각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결과라 하였다.

자녀가치관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하부요인을 살펴보면, 개인적 의미와 사회적 의미에서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개인적 자녀가치관의 점수가 높다는 것은 현대적이고 개방적인 가치관을 의미하며, 사회적 자녀가치관의 점수가 높다는 것은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가치관을 의미하는데 남학생이 둘다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사회가 과도기적 전통사상에 입각한 영향으로 자녀를 갖는 것이 사회에 대한 의무이며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적 의미로서의 자녀가치관에서는 보수적이지만, 부모가 되는 것이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며 부부관계를 위한 개인적 의미로서의 자녀가치관은 현대적이고 개방적인 것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생각된다.

성 역할 태도의 차이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월등하게 높게 나왔는데, 이는 앞선 연구결과[6,8] [10,11]와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한국사회가 많이 개방되고 젊은 세대들의 의식이 변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자녀양육과 가정생활에서 남성의 역할은 소극적이고 전통적인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요소가 남학생들의 사고에 뿌리 깊게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 성태도 항목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점수가 다소 높아 성에 대해 여학생이 더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몇몇 선행연구들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에 더 개방적이라고 나온 연구들과 상이한 결과이다. Kang과 Hwang[15]의 연구에서도 남학생의 성태도가 더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부장제도의 영향으로 남학생 부모님의 성태도가 좀 더 개방적이기 때문에 여학생의 성에 있어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이중기준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 해석했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적요구 권리나 자유로운 성행위를 중요한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라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에서 여학생이 좀 더 개방적으로 나온 것은 최근 인터넷이나 대중매체를 통해 여성의 성에 대한 문제가 사회 문화적으로 표면화되고 드러냄으로써 여학생의 성에 대한 인식이 개방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라 하겠다.

이렇듯 남녀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결혼가치관, 자녀가치관, 성 역할 태도, 성태도에서는 모두 차이가 나타났지만, 남녀 대학생 모두 출생순위나 부모 수입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성태도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무교가 기독교에 비해 개방적인 성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는 여학생들에게서 기독교가 불교와 무교에 비해 성태도가 보수적이라고 나온 결과[15]와 맥락을 같이한다. 출생순위나 부모 수입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은 20대 초반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며, 핵가족화 시대에 따른 자녀수의 감소와 부모님의 수입이 대학생들의 가치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남녀 대학생의 결혼가치관, 자녀가치관, 성 역할 태도, 성태도 모두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자녀가치관과 결혼가치관의 상관계수

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치관이 결혼가치관과 가장 상관성이 높다고 나온 연구결과들[14,28,29]과 일치하며, 자녀의 필요성을 인지하거나 이상적인 자녀수를 많이 생각하는 대학생들은 결혼을 기피하는 태도가 낮아지고 결혼의지가 증가하는 성향을 보인다는 연구[29]가 본 결과를 설명해 주고 있다. 또한, 요즘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와 다르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자신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매이면 자기 자신의 시간을 못 갖게 되므로 아이에게 들여야 할 돈, 노력, 정성을 자기 자신에게 쏟고 싶다'고 말하고 '나이를 더 먹기 전에 성공하기 위해서' 결혼보다는 자기계발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30]. 이러한 자녀가치관은 결혼에 부정적인 가치관을 갖게 하며 저출산이라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나아가 나라의 경제발전과 국가존폐를 가르는 결과로 이어진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국가적 지원이라는 경제적 차원에서만 접근하기 보다는 젊은 세대들의 가치관 변화에 초점을 두고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Table 5에서 한가지 더 주목할만한 결과는 성태도가 남자에서는 성 역할 태도, 자녀가치관, 결혼가치관의 순으로 역상관 관계를 보였는데, 여자에서는 자녀가치관, 결혼가치관, 성 역할 태도 순으로 나타난 것이다. 남자에게 있어서 성태도는 남성으로서의 성 역할에 중점을 두기 때문이며, 여자에게 있어서 성태도는 출산과 관련된 자녀가치관에 보다 중점을 두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결혼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순서는 남자는 자녀가치관, 성 역할 태도, 성태도로 나타났으며, 여자는 자녀가치관, 성태도, 성 역할 태도 순이었다. 남녀 대학생 모두 자녀가치관이 결혼가치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14,29]. 그러나 Table 6의 여학생 결과에서 성 역할 태도가 투입되면서 결혼가치관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들었다가 자녀가치관이 투입되면서 영향력이 증가된 결과는 여자들에게 있어서 성 역할 태도가 결혼가치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남녀 대학생의 성 역할 태도 차이가 다른 요인들에 비해 크게 나타난 것은 남자대학생과 여자대학생의 성 역할에 대한 태도가 확연하게 차이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남성중심의 보수적인 경향을 보이는 남자대학생들과 성 역할에 있어서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는 여자대학생

들에게 양성평등을 강조하며 긍정적 결혼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일 것이다. 반면에 자녀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상적인 자녀수를 많이 생각하는 대학생들은 결혼을 기피하는 태도가 낮아지고 결혼을 하려는 의지가 증가하는 성향을 보인다고 한 Auh와 Kim[29]의 연구와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들이 긍정적 자녀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특강, 교양과목을 개설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안이라 여겨진다. 교육을 통한 긍정적 자녀가치관이 자녀출산에 대한 의지를 높이고 나아가 올바른 결혼가치관을 형성하게 하며,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동기를 가지게 될 것이라 본다. 이렇듯, 개인의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현대사회의 저출산 문제나 결혼기피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고 국가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의 결혼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결혼가치관에 대한 남녀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결혼율을 증가시키고 저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남녀 대학생 모두 결혼가치관에 자녀가치관, 성 역할 태도, 성태도가 영향을 미쳤으며 그중 자녀가치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남자 대학생은 자녀가치관, 성 역할 태도, 성태도의 순으로 영향을 미쳤고, 여자 대학생은 자녀가치관, 성태도, 성 역할 태도의 순으로 나타나 남녀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남녀 대학생들이 긍정적인 결혼가치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 학문 분야와 국가적 차원에서 남녀별로 개별적인 교육을 적용하여 가치관의 변화를 유도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 차원에서는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결혼과 출산을 지지한다는 구체적인 지원정책과 함께 여러 매체를 통해 광고함으로써 파급력 있고 신뢰성 있는 믿음을 심어 주어야 한다. 교육기관에서는 여러 학문의 융합적 교육과정을 통해 남자대학생들에게는 남성 역할변화와 육아의 인식변화에 대한 교육을, 여자대학생들에게는 출산 여성을 엄마가 아닌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주체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강원도 W시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결혼가치관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대학생

전체로 일반화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는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 일반화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과도기적 전통사상이 아직 대학생들의 의식 속에 잠재해 있지만 대도시와 지역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지역별 결혼관의 차이를 보는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남녀 대학생들의 결혼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아존중감, 부모의 결혼만족도, 가족주의 가치관 등의 다양한 요인들을 여러 관점에서 살펴보는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REFERENCES

- [1] K. A. Brennan, C. L. Clark & P. R. Shave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An Integrative Overview. In J. A. Simpson & W. A.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 (pp. 46-76). New York, NY, US: Guilford Press.
- [2] S. Y. Youn & S. J. Kang. (2018). The Comparative Study on the Housing Values of Baby Boomers and Echo Generation.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30(2), 449-452.
- [3] J. Y. Jo. (2011). *An Analysis on The Preference of Unmarried People for Marriage and Maternity Policies, and on The Tendency for Attitude of Marriage and Child in Low Fertility Society*. Master's Thesis. Ulsan University, NamGu.
- [4] H. K. Choi & S. H. Lee. (2014). Factors Influencing the Value of Having Children among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4), 587-595. DOI: 10.5977/jkasne.2014.20.4.587
- [5]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1). *Family Survey*. [Online].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523521>
- [6] S. Y. Choi & J. K. Chang (2016). Influence of Parenting Style as Perceived by Adult Child on Perspective of Marriage: The Mediation Effect of Recognize Gender Role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4, 181-195. DOI: 10.6115/fer.2016.015
- [7]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6). *2015 Family Survey*. [Online].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817027>
- [8] N. J. Kim & S. J. Ko. (2018). Factors Influencing Attitude Toward Marriag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Korean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 19(4), 178-185. DOI: 10.5762/KAIS.2018.19.4.178
- [9] R. P. Di. (2014). *A Comparative Study of College Students Family Values in Korea and China*.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 [10] J. H. Seo. (2009). *Effects of Gender Role Attitudes and Lifestyles of Unmarried Employed Women on Position about Marriage: Focused on the Presence of Their Parents as Common Dwell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 [11] M. A. Kim & Y. S. Song. (2012). University Students Values on Marriage, Gender Role and Children.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Association*, 18(2), 303-311.
- [12] S. Y. Kim. (2010). *The Relationships Between Satisfaction with Family Relationship, the Outlooks on Marriage, and the Outlooks on Gender Role in Single Men and Wo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Yeungnam University, Gyeongbuk.
- [13] S. M. Ho. (2009).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Sexual Behavior of the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14] Y. H. Ju, E. S. Jung & M. S. Shin. (2013). The Relationship of College Students' Value on Marriage, Children and Sexual Attitude.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11(9), 267-278.
- [15] Y. S. Kang & H. Hwang. (2017). Study on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s, and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s in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3(1), 9-17. DOI : 10.14370/jewnr.2017.23.1.9
- [16] E. M. Kim, S. J. Yu & M. R. Song. (2013). Correlation Between History of Exposure to Obscene Material, Sexual Attitudes and Intercourse Experience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0(1), 18-26.
- [17] M. A. Kim & Y. S. Song. (2012). University Students Values on Marriage, Gender Role and Children.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Association*, 18(2), 303-311.
- [18] Y. M. Na & M. K. Kim. (2012). Research on the Values the Preparents Generation Places on Marriage and Child Birth.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16(2), 215-234.
- [19] Y. K. Jung, K. H. Kim, J. A. Bae, C. A. Kim & Y. J. Song. (1997). A Study on View of Marriage of Korean Adults-Comparative Analysis by Gender, Marital Status and Region. *Journal of Research Studies of Ewha Woma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32, 49-92.
- [20] J. W. Lee. (2006). *On the University Students' Perceived Views over Family, Marriage, and Children*. Master's Thesis. Yeungnam University, Kyungsan.
- [21] H. H. Kim. (2008). *The Family Values Trends in a Low Fertility Period -A survey Analysis of Secondary School Students and Single Males and Females Aged 20-29 Years*.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ju.
- [22] H. J. Lee. (2009).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Sex Role Identity Type and Sexual Consciousness &*

*Sexual Value*. Master's Thesis. Kyungwon University, Seongnam.

- [23] Y. H. Yu. (2015). *A Study on the Love Styles and Sexual Attitudes of the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Ulsan University, NamGu.
- [24] N. Y. Joo. (2012). *Study on the Both Childbirth Will and Notion of Marriage of the Singl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kuk University, Seoul.
- [25] S. K. Koh & S. Auh. (2013). An Effect of the Financial Resources on the Willingness to Marriage Formation among the Never Married in Their 30s. *Korea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7(1), 63-79.
- [26] J. B. Kim. (2013). The Study of Moderating Effects upon Gender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 Marriage. *Journal of Social Science*, 39(1), 1-24.
- [27] J. Park. (2016). The Effects of Family Values and Expectation for Social Support on Marriage Intention Among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4(4), 21-35.
- [28] G. Y. Kim. (2009). *A study on Factors Associated with Perceptions of Marriage Among Unmarried University Students*, Homan University. Master's Thesis. Honam University, Gwangsangju.
- [29] S. Auh & J. Kim. (2013). Research on the Evasion & Willingness to Marriage Formation among the Students in the National Colleges of Education.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26(3), 149-163.
- [30] K. E. Lee & K. Park. (2006). The Effect of a Sexual Violence Counselor Program on Knowledge toward Sexual Autonomy and Rape Myth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2(4), 301-307.

김 혜 진(Hye-Jin Kim)

[정회원]



- 2002년 2월 :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사)
- 2015년 8월 :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간호석박사통합)
- 2019년 9월 ~ 현재 :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교수
- 관심분야 : 정신간호, 기본간호

· E-Mail : khj1203@cau.ac.kr

김 희 정(Hee-Jeong Kim)

[정회원]



- 1986년 2월 :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사)
- 1997년 6월 : 중앙대학교 보건학석사
- 2011년 2월 : 중앙대학교 간호학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남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성인간호, 중환자

· E-Mail : yshbb@nsu.ac.kr

서 민 숙(Min-Sook Seo)

[정회원]



- 1995년 2월 :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사)
- 2006년 2월 :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간호석사)
- 2013년 2월 :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간호박사)
- 2017년 5월 ~ 현재 :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중환자, 응급간호, 성인간호

· E-Mail : placebo72@sangji.ac.kr